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4. 30.(목)

조달청, AI 기술로 더 나은 조달서비스 신속 제공 !

-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시스템’ 개통
- 수작업에 의존하던 유사 구매 실례 조사를 AI가 규격서를 읽고 분석까지 척척
- 입찰 준비 시간 획기적 단축 및 조달가격 신뢰도 향상 기대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의 핵심 업무인 ‘예정가격 작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시스템’을 30일부터 본격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작성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업의 적정 입찰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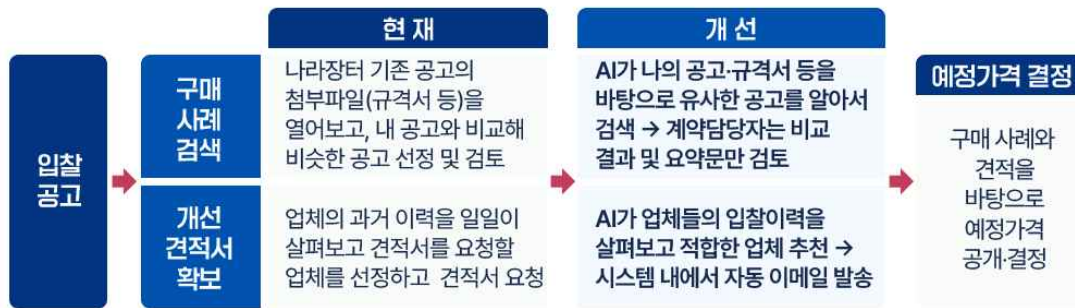
그동안 담당자들은 매년 8,000건이 넘는 물품 계약을 위해 수많은 과거 규격서를 일일이 열람하며 유사 사례를 찾아야 했고, 이는 과도한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로 이어져 왔다.

이번에 개통된 시스템은 이러한 수작업 위주의 방식을 AI 기반의 자동화 체계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것이 특징이다.

사용자가 나라장터에 공고를 등록하면, AI가 첨부서류에서 핵심 정보를 추출·요약하고, 최근 3년간의 유사 사업 목록을 제공한다. 이를 활용하여 담당자는 구매 실례를 즉시 판별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된다.

특히, AI가 유사 사업의 조달업체 투찰 이력을 분석해 입찰 참여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추천해 주고, 시스템 내에서 바로 견적 요청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해 견적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AI를 이용한 예정가격 결정 업무 프로세스



조달청은 이번 시스템 개통이 조달 행정에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공공조달 AI 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조달행정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이다.

조달청은 올해 AI 기반의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 시스템, 입찰공고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추가 개발하고, 2027년에는 모든 AI 조달 지원 도구를 통합한 ‘지능형 공공조달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지난 8개월간(‘25.8월~’26.4월)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조달청은 신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 정보화사업 절차 대신, 행정안전부의 ‘공공빅데이터 분석 공모사업’을 활용해 단기간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발 과정에서는 2차에 걸친 사용자 테스트와 내부 시연회를 통해 현장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는 등 실사용자인 계약담당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예정가격 작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의 출발점이자 가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조달 업무의 정확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임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디지털공정조달국 조달데이터관리팀	책임자	과 장	송 지 혁	(042-724-6300)
		담당자	사무관	박 규 현	(042-724-6340)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